

TOBESOFT

개발자관점에서 보는
로우-코드(Low-code) 플랫폼과
개발 환경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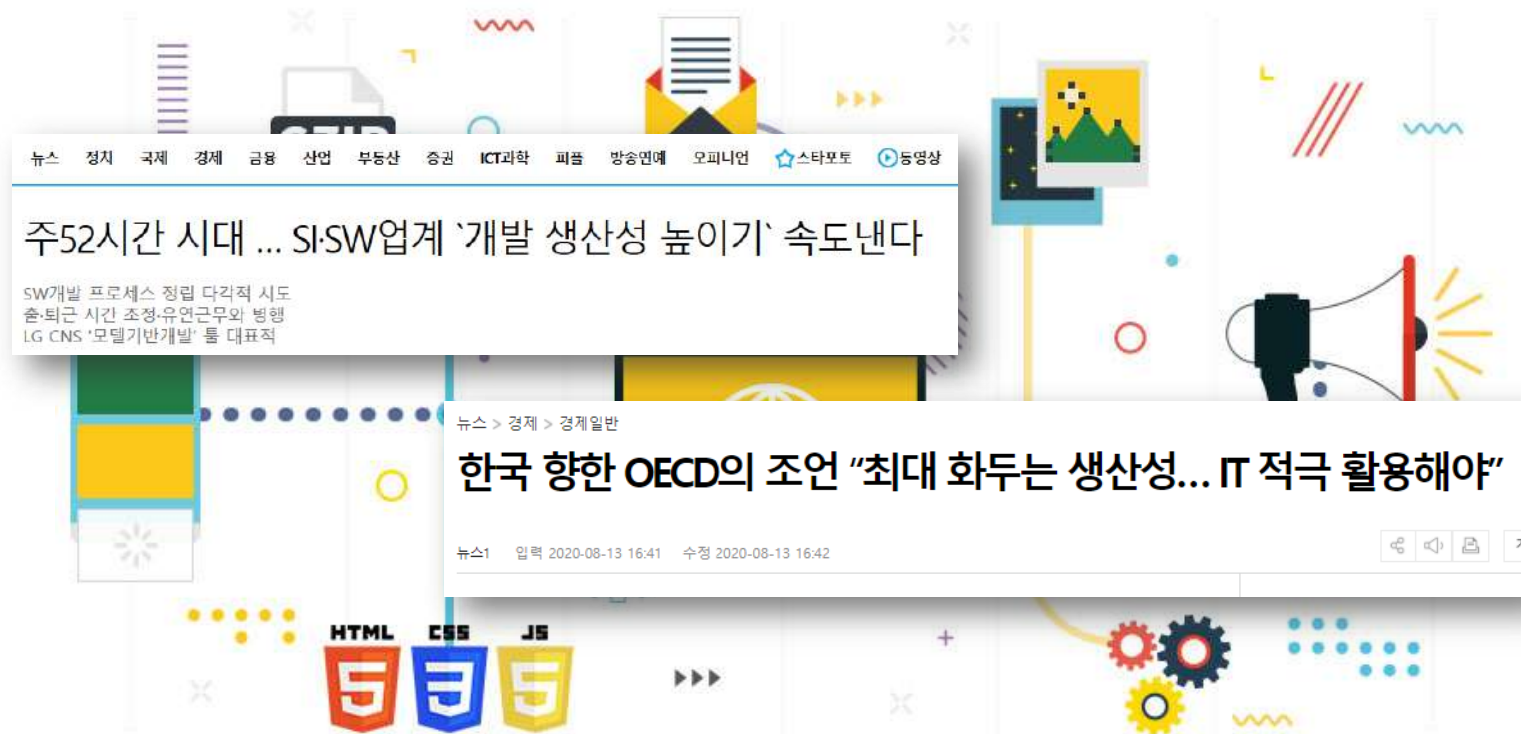
투비소프트 김대원

2020년 9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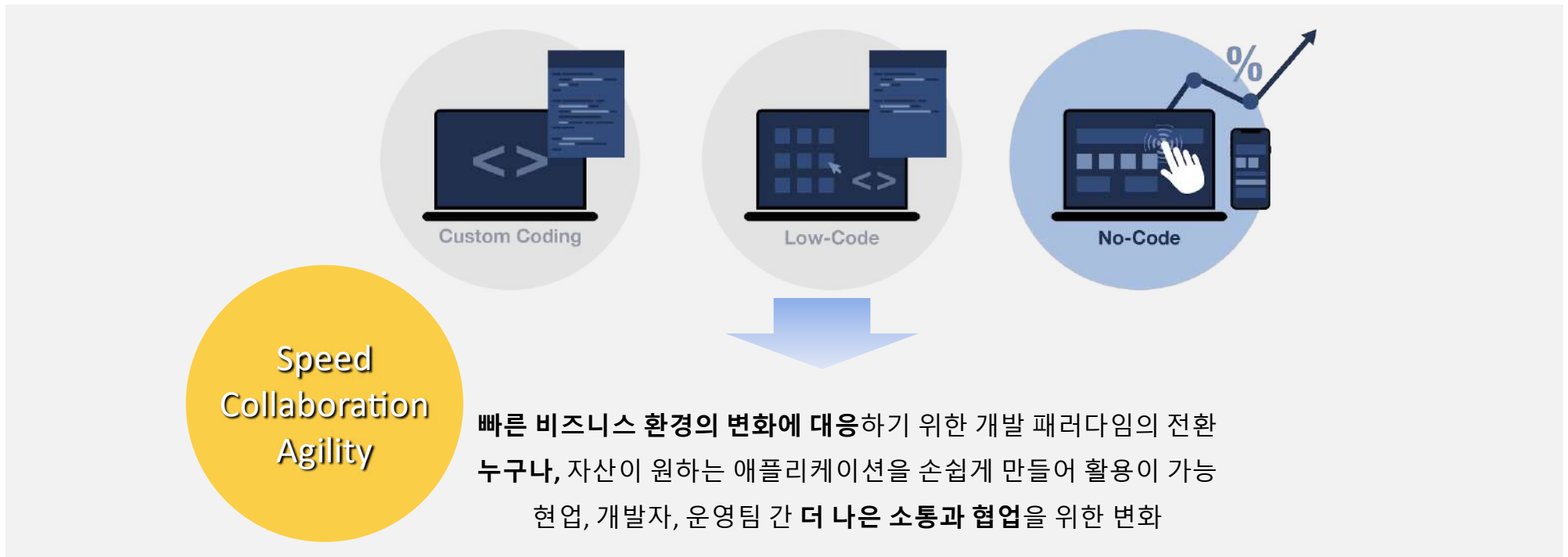
기업 IT 환경의 변화와 개발 환경의 명함

웹과 모바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의 증대와 빠른 개발 속도가 요구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88%의 개발자가 개발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가기 버거워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개발자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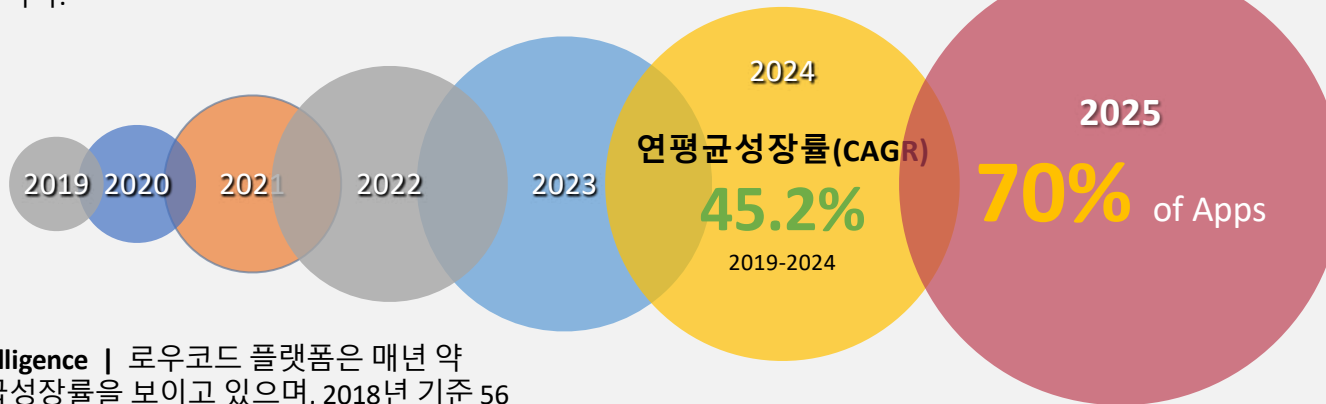
복잡한 기술의 융합과 긴박하게 변하는 시장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은 빠르고 손쉽게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개발자들도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앱 발이 가능한 로우-코드(Low-code), 노-코드(No-code) 방식의 환경이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What is Low-code Development?

로우-코드 플랫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의 관점에서, 각종 규제나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한 개발 생산성 관점에서도 비용효과가 탁월한 최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 자동화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로우코드의 우선순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P&S Intelligence | 로우코드 플랫폼은 매년 약 45%의 급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56억 달러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가 2024년 그 10배 수준인 520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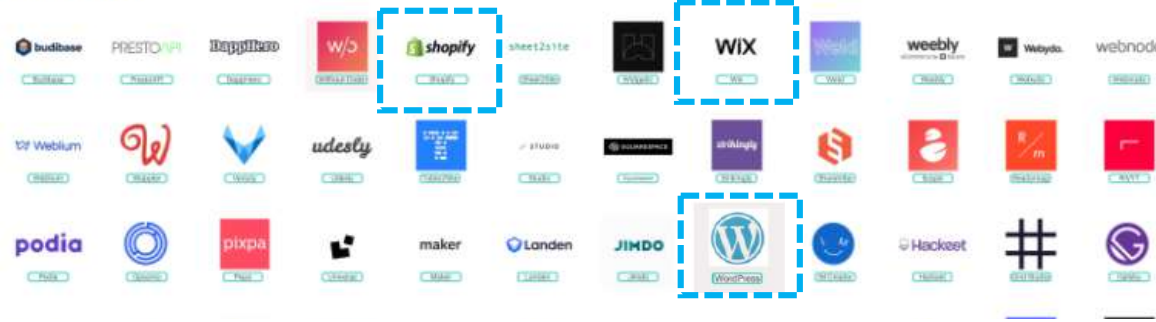
포브스 | 로우코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놓칠 수 있는 민첩한 대응력 갖춥니다.

가트너 | 2025년까지 70%의 앱이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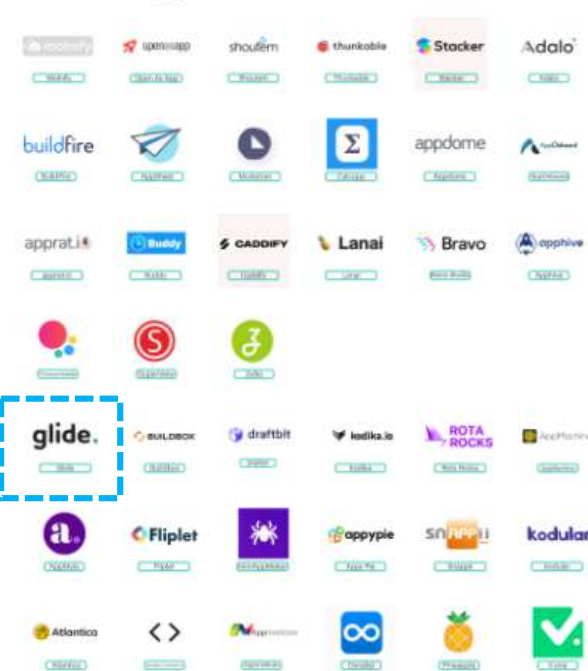
다양한 로우-코드 플랫폼의 탄생



Web Apps



Mobile Apps



Business Ap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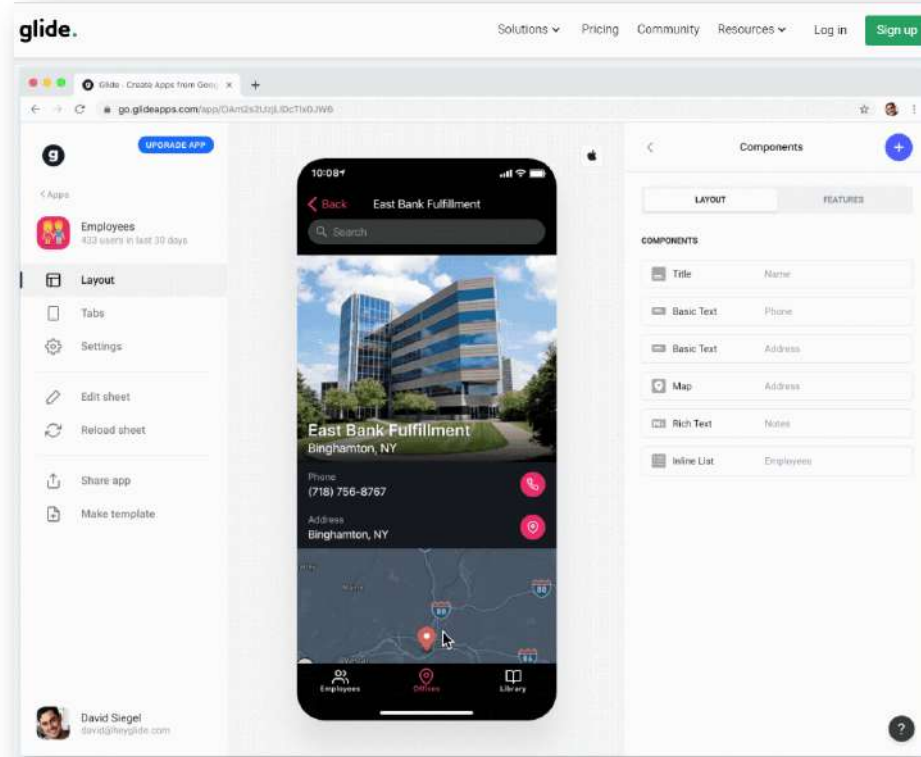
Databas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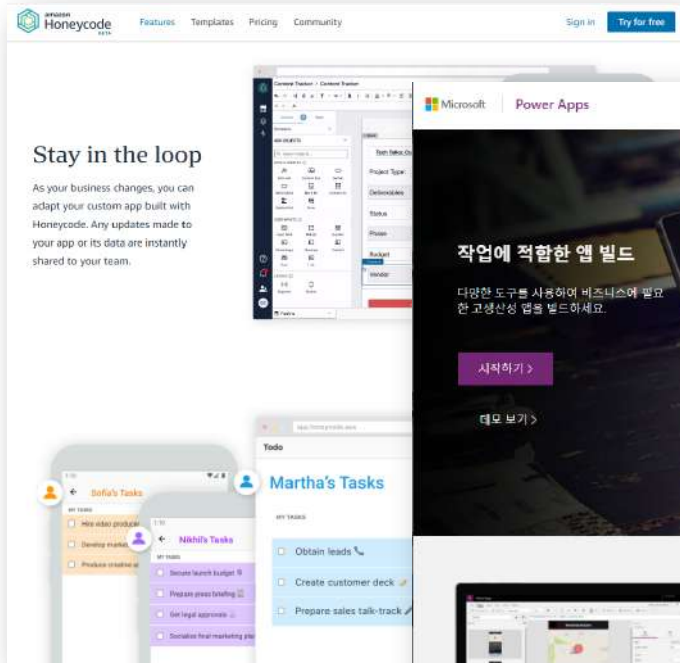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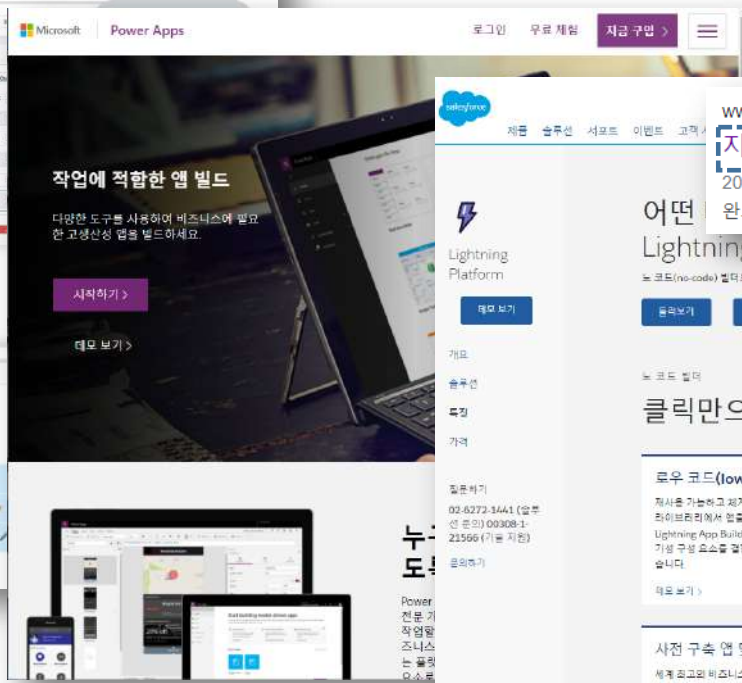


오직 “드래그 & 드롭(Drag & Drop)”으로 만드는 모바일 앱 화면

B2B 시장으로의 확장



Amazon – Honey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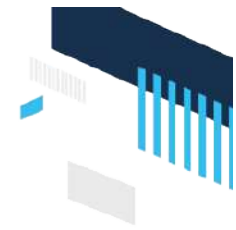


Microsoft – PowerApps



Salesforce – Lightning Platform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 활용 사례



뉴욕 코로나19 no-code로 긴급개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속도지만 코드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음으로 신속한 개발의 비결”

노코드 또는 로우코드 소프트웨어는 이미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격전지라도 부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구글도 연례크에 투자한데 이어 올초 주요 노코드 업체 중 하나였던 앱시트를 인수하는 등 이 시장 공략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2억5천만개** 프로세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파워웹스 모바일 앱 공개 프리뷰 버전을 iOS와 안드로이드용으로 공개했다.

파워웹스는 캔버스(canvas)와 모델 드리븐(model-driven) 앱을 돌릴 수 있다. 캔버스 앱의 경우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끌어와 앱을 만들고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준다. **5억개** 어플리케이션

<CNB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5-6년간 약 5억개 가량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0년간 개발된 모든 앱들보다도 많은 수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질스 라만나 시티즌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담당 부사장은 “이게 사실이라면 이중 4억5천만개는 로우코드 도구를 통해 개발될 것이다”라며 “이렇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코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 없다. 프로 개발자들은 어려운 과제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코딩이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뉴욕시의 경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며칠만에 위기 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속도인데, 제작 과정에서 코드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신속한 개발의 비결이었다.

그룹웨어 다우오피스 공급사인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운덕)은 키워드로 본 '2020 그룹웨어 트렌드'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총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2020 그룹웨어 시장을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 그룹웨어 시장의 첫 번째 트렌드는 메신저 중심의 협업이다. 실제로 협업의 간편화라는 트렌드에 맞춰 메일 중심의 협업 패턴이 점차 메신저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료와 소통이 가능한 메신저 형태의 협업 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슬랙'과 같은 기업용 메신저가 대체로 기업용 메신저 기반의 협업 플랫폼의 과 공간의 제약 없는

다우오피스 1.5만개 앱

두 번째 트렌드는 그룹웨어가 단순한 협업 툴의 위치를 넘어 기업 내 통합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코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은 없다.”** ERP, CRM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통합 외부 솔루션과의 간단한 연동을 지원하고 협업공제관리/경비지출관리/클라우드 ERP와의 제휴를 통해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트렌드는 LCDP 플랫폼의 등장이며, LCDP(Low Code Development Platform)의 약어로 기술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손쉽게 빠르게 원하는 앱을 만들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러한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은 해외에서는 이미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 중의 하나이다. 다우오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허 받은 협업 기능인 'Works'는 이러한 LCDP를 활용한 기능이다. 'Works'는 개발자의 도움 없이 원하는 협업 기능을 Drag&Drop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생성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우오피스를 사용 중인 고객사에서는 약 1.5만개의 앱을 직접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30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밝은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TOBESOFT



쉐도우 IT (Shadow IT)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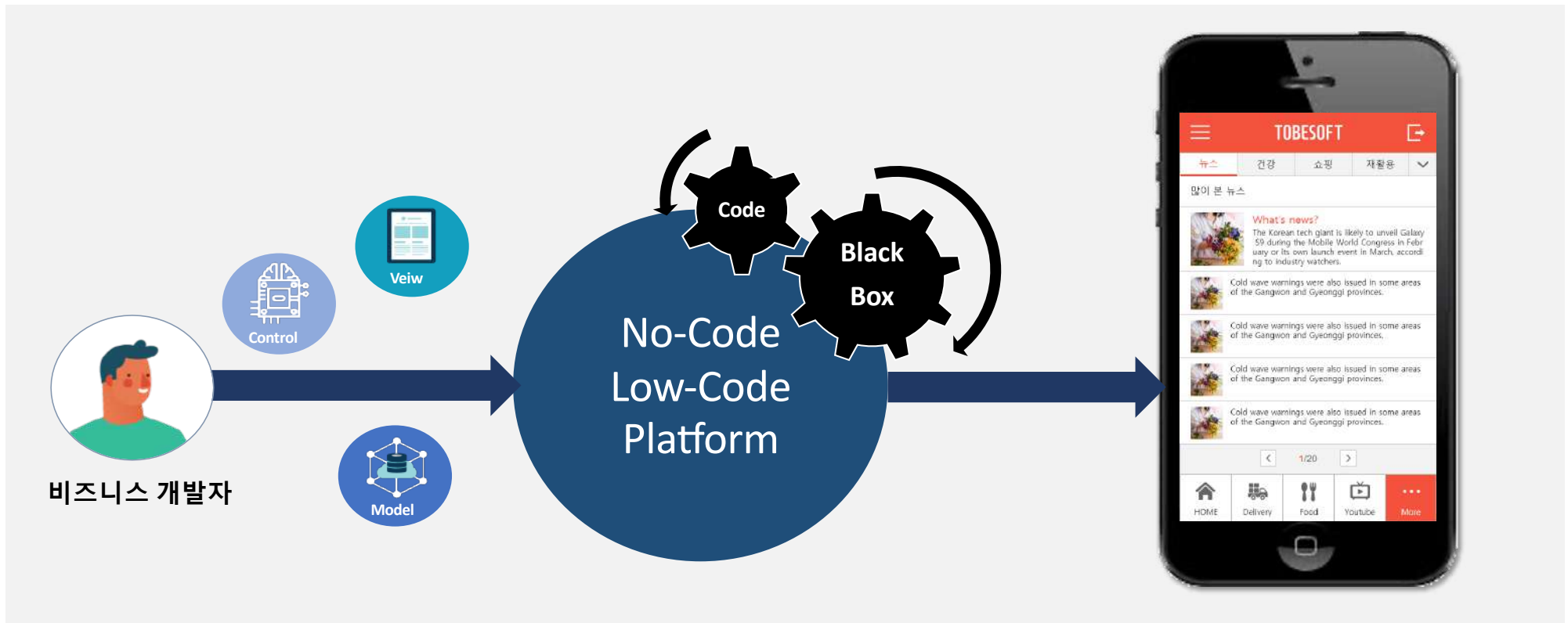
쉐도우 IT란? 기업 내 IT 조직의 권한 및 통제 영역 밖에서 사용되는 IT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의미하며 로우-코드를 통해 개발된 비 인증 서비스는 보안, 데이터, 관리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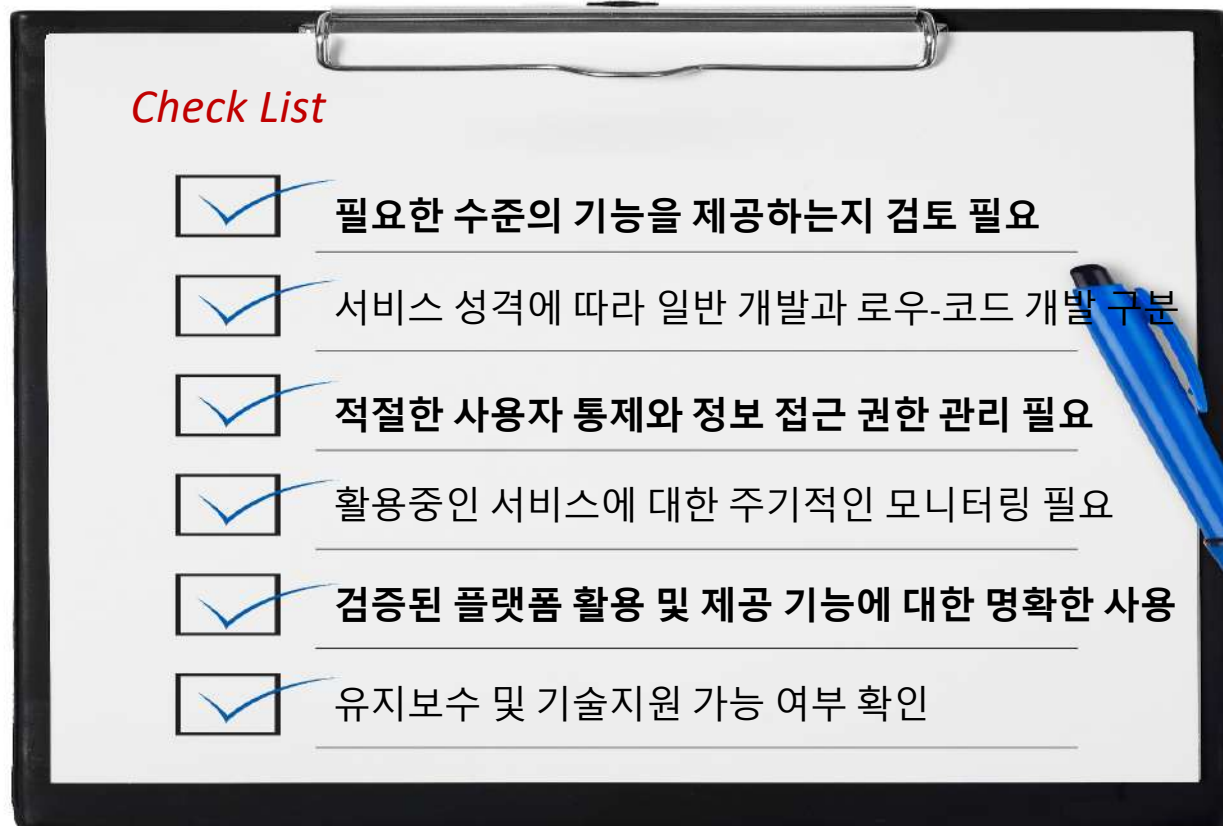
BlackBox Code 이슈

*BlackBox Code: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없도록 숨겨진 개발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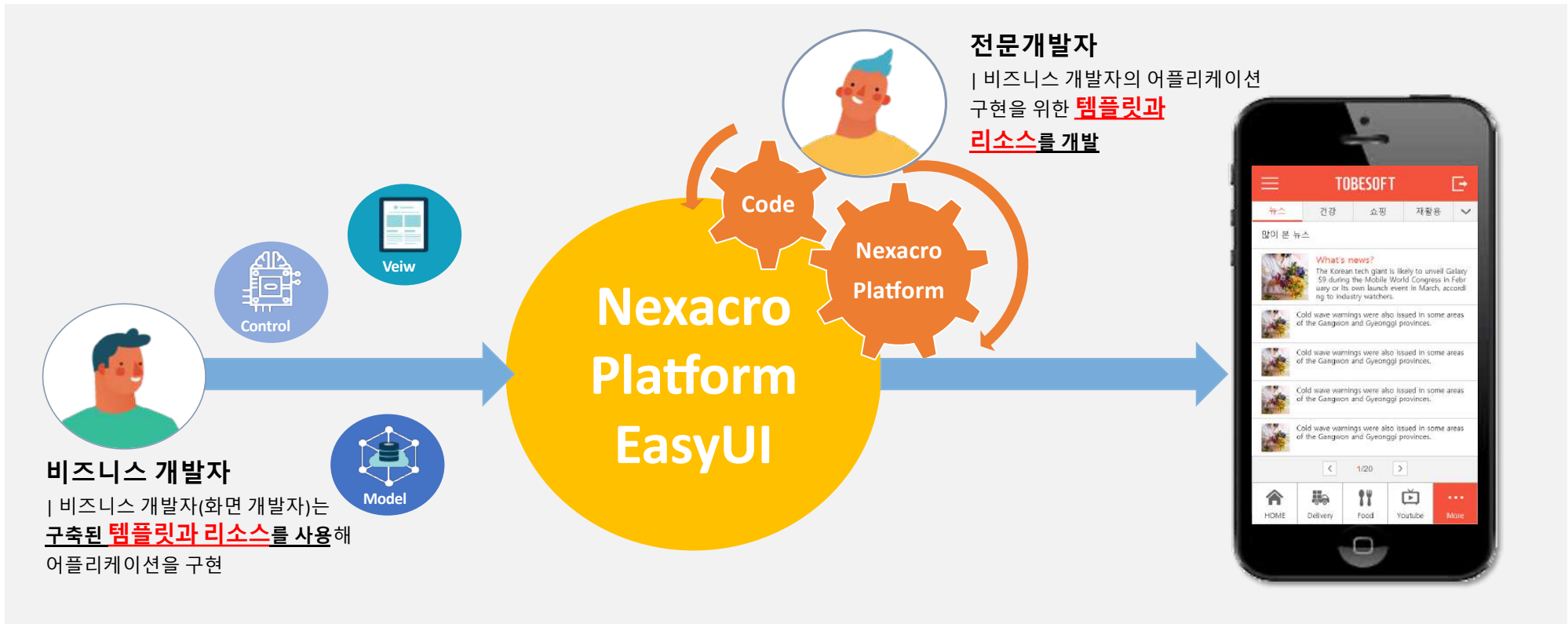
로우-코드 플랫폼의 내부 동작 방식은 **BlackBox Code**로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자체 해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로우-코드 플랫폼 도입을 위한 체크리스트



Nexacro EasyUI를 통한 로우-코드 개발 방식 + 시연



투비소프트 UI/UX 로드맵

국내 UI/UX 시장의 리더로 축적된 투비소프트의 기술력으로 더 나은 가치, "Intelligent UI"를 추구합니다.



로우코드/노코드 (EasyUI)

비즈니스 개발자와 전문 개발자에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빠른 비즈니스 대응이 가능



비욘드 스크린 (Beyond Screen)

향후 가전제품이나 차량, 로봇까
지 다양한 UI의 복합적 활용을 지
원



지능형 UI (TOBESOFT AI LAB)

투비소프트 AI LAB의 AI 기술력으로
사용자의 환경을 분석하고
블록UI의 조합으로 새로운 화면 구축

TOBESOFT

감사합니다.

